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6년 6월 26일(금)

...(음력 5월 12일)...

Пятница

26 июня 2026 г.

№ 25 (12192)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올해는 6월 27일에 기념하게 되었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단신

2026년 사할린에 극동 우주발사체 경로측정소 건설

사할린에 러시아 연방 우주국의 새로운 전략시설 건설이 75% 완료되어 이 지역에 100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가 포로나이스크 지역을 방문하여 '사할린' 우주발사체 경로측정소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이 시설은 극동 우주발사장 지상 제반시설의 일부분으로 사할린 주정부 측이 전했다.

사할린은 로켓 비행의 궤적 측정에 유리한 지역으로서 측정소 부지로 선정됐다. 우주 전문가들은 포로나이스크에서 원격측정데이터를 수신하여 아무르주의 로켓 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경로측정기지는 우주 발사체를 지원하는 곳으로 현재 공정률은 75% 이고, 이미 작업자들이 4개의 안테나 복합시설을 설치했으며, 기계기술자들이 우주 정보 자료를 수집 및 처리할 주요 기술적 시스템의 완공을 앞두고 있다. 해당 기지에는 정보 송신 및 수신시스템, 위성통신국, 운영통제센터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전략 시설의 모든 공사작업은 올해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5대 사륜 오토바이, 사할린에서 특수군사작전 지역으로

사할린주에서 군 지원을 위해 사륜 오토바이 5대를 특별군사작전 지역으로 보냈다. 차량은 지난 6월 23일 전방으로 출발했으며, 이달 말 부대에 도착할 예정이다. 고기동성 차량은 탄약운반, 정찰, 부상자 후송 등에 사용된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 동포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있다. 기술 지원, 인도적 원조, 가족 돌봄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2년부터 지역 내 ‘협력참여’ 프로젝트가 운영 중이며, 수천 명의 주민이 위장망 제작, 식량 지원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사할린에 무인기 조종사 훈련센터 개소

사할린에 무인항공기 조종사 훈련을 위한 항공교육 센터가 문을 열었다. 이 센터는 러시아 최초의 드론공항 ‘푸시스티’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수군사작전 경험을 가진 강사진이 교육을 맡고 있다. 첫 교육생들이 지난 6월 22일부터 훈련을 시작했다.

리마렌코 주지사는 “이 센터는 방어뿐 아니라 산불 진화, 생태, 토지대장, 토지분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은 3주 과정으로, 이론과 시뮬레이션 비행, 실전 비행 훈련을 포함한다. 향후 이 프로그램을 극동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례 국제 드론포럼 ‘사할린의 날개-2026’가 7월 3~4일 코르사코프 지역 푸시스티 비행장에서 개최된다.

친애하는 청년 여러분!

6월의 마지막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올해는 6월 27일에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사할린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전문가로서 사회에 뛰어난 청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또한 생활전선의 길을 준비하거나 첫 성공을 거둔 청년들에게 축하드립니다!

사할린주는 지난 몇 년간 청년들을 위한 진정한 기회와 땅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제는 양질의 교육을 받고, 자신의 창의적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 향토를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사할린 향토에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할린의 대학은 '가스프롬'의 거점 대학이 되었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쾌적한 '대학생의 거리'가 문을 열었으며, '사할린 테크'대학의 과학연구센터가 건설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유망한 기업들이 대학의 졸업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사할린에 보리스 슈킨 연극학교를 비롯해 태평양 의과대학 분교가 설립되었습니다.

사할린의 청년 대표들은 대학생 봉사단에서 일하고, '워인'센터에서 훈련을 받으며, '최고들의 활동'기획에 참여하고, 러시아 탐색활동 및 다른 단체의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마음에 드는 일을 찾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창의적 에너지는 사할린 지역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보증과 같습니다. 우리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청년들이 학업에서, 근로에서, 스포츠와 창작에서, 사업과 조국을 위한 복무에서 이뤄낸 성과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청년의 날을 맞아 사할린의 청년들에게 모든 일에 성공과 강건함과 행복과 번영을 기원하며, 여러분의 꿈이 성취되길 바랍니다!

발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주지사, 포로나이스크 지역 최대 규모의 가스보일러시설 건설현장 시찰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포로나이스크를 실무차 방문 중 제1호 자동가스보일러시설 건설현장을 시찰한 가운데 시설 공정률은 85%이며, 이로써 다가오는 난방 가동시기에 12,500명의 주민들에게 난방을 공급할 예정이다.

새로운 친환경 보일러는 기존의 석탄보일러시설을 대체하게 된다.

발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말에 따르면 사할린의 중부 지역 대규모 가스화사업은 환경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 산업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전망이다. 가스보일러시설 건설은 통합 러시아당의 국민프로그램 지원으로 사할린주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시공업체는 이미 설비-모듈

식 보일러 구조물의 98% 조립을 완료했다. 건설업체는 오는 10 월 말까지 시운전을 완료하고, 12월에 가스보일러시설 전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새로운 가스보일러 시설은 60메가와트(MW)급으로 주민들의 가정과 9개 학교, 130개 이상의 기관들에 난방을 공급하게 되며, 가스배관망 설비는 이미 완료되었다.

포로나이스크에서 '키트-사할린'회사와의 양허계약(민간투자사업 협정)에 따라 5개의 가스보일러시설이 건설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역 중심지를 비롯해 가스텔로 마을과 레오니도워 마을에서는 공사가 완료단계에 있다. 지역 가스보일러가 가동이 되면 천연가스로 난방 80%를 공급하게 된다.

새고려신문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학교 21>사할린 캠퍼스, 올해 연말까지 5차례 추가 집중교육과정 선발 진행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가 '학교 21'의 사할린 캠퍼스 학생들과 만남을 가진 가운데 주지사 와 지역 디지털팀이 예비 IT 전문가들에게 산업 선도기획과 인적 자원의 전망을 소개했다.

'학교 21'의 사할린 캠퍼스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정보자료의 경제> 국가 기획의 일환으로 2024년 9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개교했다. 이 기획은 사할린주 정부가 과학적 생산센터 '사할린의 날개'를 중심으로 '스베르'와 공동 추진하고 있다. '학교 21'의 사할린 캠퍼스는 만 18세 이상 지원자들이 선발단계를 성공적으로 통과할 경우 무료로 수료가 높은 IT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참가자들에게 “우리는 기술 발전과 디지털화가 큰 역할을 하는 새로운 경제 현실에 살고 있다. 바로 IT 전문가들이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은 올바른 직업과 올바른 삶의 터전을 선택했다. 사할린주는 인공지능 도입과 디지털 전환 부문에서 러시아 내 선두 지역 중 하나이고, 또한 생활의 질 부문에서도 전국 상위 5개 지역 안에 든다. 우리는 이미 우수한 IT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올해 '학교 21'의 사할린 캠퍼스 본 교육과정에 500명을 모집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교육과정 수강생들에게는 취업 전망이 소개됐다. 학습과정에서 대형 통신사와 금융권에서 인턴십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학교 21' 사할린 캠퍼스 학생들은 사할린 인공지능센터의 기획작업에도 참여하게 된다.

사할린 인공지능센터 소장 드미트리 예브도키모브는 “인공지능센터 설립 작업은 2023년에

시작했다. 현재 16명이 근무 중이며, 지역 이익을 위한 응용과제를 해결하고 있다. 돼지풀 발생 지점 식별, 불법쓰레기 매립지 및 하천의 흐름 막힘 탐지 등 모두가 무인기 데이터 처리를 활용하는 우리의 기획들이다. 지역 자산관리부를 위한 지적 분석 자동화도 성공적인 기획 중 하나다. 또한 컴퓨터 감시카메라를 활용해 도로 결함 탐지를 위한 모델 개발 및 분석도 우리는 수행했다. '학교 21' 사할린 캠퍼스는 우리의 핵심 파트너로서, 학생들을 인턴으로 받아 실제 과제해결 능력을 교육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이미 학습 중에도 취업을 찾고 있다. 성공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방사선과 의사 마라트 갈리울린이다. 그는 “30세 이후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시작했고, 이에 집중 공부하면서 모스크바 물리기술대학을 졸업했다. '학교 21'의 사할린 캠퍼스에 대해서는 온라인 뉴스를 통해 알게 되어 도전해 보기로 했고, 등록 후 선발전을 성공적으로 통과했다. 현재 본 교육과정을 이수하면서 동시에 사할린 인공지능센터에서 데이터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다. 15년간 의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어, 새로운 활동과 의료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라고 그는 전했다.

2026년 '학교 21'의 사할린 캠퍼스는 이미 7차 집중교육과정 선발을 진행 중이며, 연말까지 다섯 차례 더 선발할 예정이다. 가장 가까운 기수 모집은 7월에 시작된다. 올해 선발 과정을 통해 총 1,500명의 지원자가 교육과정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IT 교육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할린 캠퍼스의 최고령 수강생은 80세다.

유즈노사할린스크, 제 7회 극동 연극축제 진행 중

2026년 6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섬 지역에서 제7회 극동 연극 축제가 막을 올린 가운데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연극 생활의 중심지가 된다.

이전에는 이 대규모 문화 행사가 하바롭스크에서 열렸으나 3년 전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 예브게니 미로노브(러시아 국민예술가이자 극동 연극예술 발전 프로그램 책임자)가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축제의 중심지로 결정했다.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는 “우리 지역은 3년 연속 대규모 연극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는 연극과 위대한 러시아 문화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긴다. 2주간 사할린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 관객들은 극동 최고의 공연과 수도권의 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다. 축제는 도시 내 공연장에서 펼쳐지며, 창작 워크숍에서는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축제 개막일에 사할린 연극 애호가들은 예브게니 미로노브의 연기로 펼쳐지는 공연-콘서트 <루스키 크레스트>를 감상할 수 있었다. 시골의 평범한 사람에 관한 시를 국민예술가가 낭독하고, 민속양상블 '코몬'의 독특한 연주가 어우러졌다.

예브게니 미로노브는 “사할린 관객들은 매우 따뜻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곳 무대에 서는 것이 큰 기쁨이다. 그리고 지역 당국과 주지사의 문화에 대한 관심을 빼놓을 수 없다. 여기서는 정말 발전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진다.”라고 말했다.

축제 포스터에는 극동 연극단의 최우수 작품 11편과 수도권 공연이 포함됐다. 관객들

은 예르몰로와 모스크바 극장의 러시아 인민 예술가 빅토르 수호루코브의 창작의 밤 '행복한 날들', 그리고 코미사르제프스카야 샹트페테르부르크 아카데미 단막극장의 '웨라 라이브'와 '하얀 밤'을 관람할 수 있었다. 러시아 명예예술가 세르게이 초니시윌리가 사할린 재즈 및 팝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함께 두 차례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연극 애호가 예카테리나 글로토허는 “축제 기간 동안 연극에 몰입하게 되면 그 후로도 오랫동안 그 여운이 남아 기억하고, 감동하고, 생각으로 다시 떠올리게 된다. 사할린에서 이런 행사가 열리는 게 놀랍다. 특히 유명 배우들과 실력 있는 극단이 찾아온다는 점이 더욱 소중하다.”라고 말했다.

축제는 풍성한 공연뿐만 아니라 무대 관계자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진행하여 극동 연극단 배우들을 대상으로 마스터클래스와 연출 워크숍이 열린다.

미르니 극장의 배우 드미트리 젤닌은 “기획상 사전에 주제나 자료, 상대방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다른 도시에서 온 배우들과 팀을 이루어 특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단 이삼 일 만에 시연작을 만들어 관객에게 선보여야 한다. 이런 기획에 참여하는 것이 전문가들에게는 강한 자극제가 된다.”라고 말했다.

또한 6월 23일부터 7월 2일까지 '도시 속의 연극'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사할린 주민과 방문객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 코르사코브, 오흐츠크에서 연극, 야외 공연,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다. 입장은 무료다.

이 모 저 모

사할린주의 가장 먼 세웨로쿠릴스크 박물관, 디지털 전시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가족' 국민기획 실현의 일환으로 세웨로-쿠릴스크 향토 박물관이 첨단장비와 최신 기록보관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세웨로-쿠릴스크 박물관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제2차 세계대전의 유일한 역사적 유물들을 볼 수 있도록 대대적인 현대화 설비공사를 진행했다.

이전까지 이 지역의 혹독한 기후조건 때문에 많은 희귀 전시품들을 쉽게 관람하기 어려웠지만 새로운 최신 보관시스템으로 이를 해결한다고 이 지역 문화부가 전했다.

파라무쉬르섬 박물관을 개혁하게 된 목적은 쿠릴열도의 풍부한 역사를 전 연령대의 사람들이 좀더 편리하고도 일목요연하고, 흥미롭게 관람하도록 하는 데 있다. 설비 전문가들은 빠른 시간 내에 공사와 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고, 설비공사 기간에도 박물관을 방문객들에게 개장할 예정이다. 박물관장 블라디미르 니키포로브에 따르면 아인스크 전시관과 지질변동과정 전시관, 쿠릴 상륙작전 전시관 등 세 구역에 새로운 디지털 전시관을 설치할 예정으로 박물관 측은 디지털 전시관을 통해 새로운 방문객들과 관광객들의 방문을 기대하고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은 박물관의 새로운 변화를 적극 지지하고 있으며, 세웨로-쿠릴스크 주민 올레그 스트로킨은 혁신적인 기술 도입은 청소년세대로 하여금 더 자주 박물관을 방문하게 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게 하며,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청년세대를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세웨로-쿠릴스크 박물관의 현대화는 역사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한 대규모 극동기획의 한 부분이다. 새롭게 개선된 박물관은 대규모 군사 역사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유명한 숨수섬으로 가기에 앞서 연구자들과 관광객들을 위한 주요한 매력적 장소가 될 거라 전망한다.

Самый удаленный муз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сделают интерактивным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нацпроекта «Семья», иници-

ированного президентом РФ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учреждение получит новейшее оборудование и современные системы хранения для архиво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ий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ждет масштабная модернизация, которая поможет открыть для жителей и туристов уникальные артефакты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ы. Из-за суровых островных климатических условий многие редкие экспонаты раньше были недоступны для выставок, но новые современные системы хранения решают эту проблему,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культа. Главная цель обновления музея на Парамушире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бы сделать богатую историю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доступной, наглядной и интересной для людей всех возрастов. Специалисты планируют завершить ремонт и монтаж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ри этом на время обновления музей постарается остаться открытым для посетителей. По словам директора музея Владимира Никифорова, новые интерактивные столы установят сразу в трех локациях: в аинском зале, в зале геологических процессов и в зале, который посвящен Курильской десантной операции. Руководство учреждения рассчитывает, что цифр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ривлекут новых посетителей и путешественников.

Местные жители также поддерживают изменения в учреждении. Житель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а Олег Строкин отметил, что использование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 это отличный способ увлечь историей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чтобы подростки чаще приходили в музей и узнавали что-то новое.

Отметим, что модернизация музея в Северо-Курильске стала частью большого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проект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исторической памяти. Обновленное учреждение превратится в ключевую точку притяжения для исследователей и туристов перед отправкой на знаменитый остров Шумшу, где создают масштабный военно-исторический комплекс.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바다의 선물> 미식마라톤, 참가신청서 접수

사할린 지역의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매해 열리는 도시 미식 축제에 참가신청을 하고, 창작 생선요리를 선보일 기회가 왔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바다의 선물> 미식마라톤 참가신청을 접수하기 시작했다. 도시의 일반 음식점체들은 해산물로 독특한 창작요리를 고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셰프-조리사들은 오는 7월3일까지 등록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에 주 최 측이 제시한 두 가지 방법은 이메일(dpr@yuzhno-sakh.

ru)로 제출하거나 식자재점(카를라 막스 거리, 20번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서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청 공식홈페이지에서 쉽게 받을 수 있다. <오스트로브-리바(섬-생선)> 전통축제의 일환으로 미식마라톤은 8월 10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며, 참가조건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화(300-741 и 300-743 (2번 추가) 바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открыли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гастромарафон «Дары морей»

Местные кафе и рестораны могут заявить о себе и представить авторские рыбные блюда на ежегодном городском фестивал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чался прием заявок на гастронимический марафон «Дары морей». Городские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пита могут предложить гостям уникальные авторские блюда из морепродуктов. Для участия шеф-поварам нужно успеть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до 3 июля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одать заявку можно двумя способам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ринимают анкеты по электронной почте dpr@yuzhno-sakh.ru. Также можно принести документы лично в департамент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на улице Карла Маркса, дом № 20. Бланк заявки доступен для скачивания на официальном сайте мэр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м гастромарафон пройдет с 10 по 30 августа в рамках традиционного фестиваля «Остров-Рыба». В этот период жители и туристы смогут оценить мастерство местных кулинаров.

Уточнить детали и задать вопросы по условиям участия можно по телефонам 300-741 и 300-743 (добавочный 2).

사할린주 도서관, 장애인을 위한 포용적 관람 조직

6월 23일 사할린주 일반 과학도서관이 '사할린 탐구' 문화 계몽기획의 일환으로 장애인과 운신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 <새로운 사할린> 이동 탐방을 진행했다.

관람 참가자들은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모습 속에 정신적인 전통과 현대적인 건축양식의 조화를 살펴봤다. 첫 번째 방문지는 철도병원 부지 내 성 누가 성전(위이노-야세네츠키)을 방문했는데 성 누가 (위이노-야세네츠키)는 의학 교수로 의사와 환자들의 수호자로 알려져 있다.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제2회 '사할린 나물' 축제 열려

지난 6월 20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유리 가가린 문화휴식공원 내 한 곳에서 제2회 '사할린 산나물' 축제가 열렸다. 이 행사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한인회(회장 림종환))와 한민족여성네트워크 러시아 사할린 지부(KOWIN, 지역장 최금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축제는 산나물 채취 시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주요 행사는 야생식용식물인 동의나물, 머위, 고사리로 요리하는 비법을 가르치는 요리교실이었다.

이날 야외 무대에서는 다양한 민족 예술단체들이 참여하는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에게 아름다운 춤과 노래를 선사했다. 모두가 잘 아는 '카슈샤'란 노래로 공연의 막을 올렸는데 이번에는 한국어로 '카슈샤'를 불러 새로웠다.

한민족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 이번에 전통놀이, 민화 활동교실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반침대 그리기, 한복 모양 브로치에 비즈 수놓기, '나물' 팬던트 만들기, '요정의 마법 지팡이', '신나는 연' 등 다양한 놀이부스가 운영되어 어린이와 어른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개인 사업자들이 신선한 나물, 김치, 순대, 라면, 팔짬빵, 빵세, 만두, 젤리 등 수많은 별미를 선보였고, 수공예품 진열대에서는 한국 전통 문양이 담긴 각종 작품들이 판매되었다.

분위기를 돋우는 공연과 다양한 활동교실, 민속놀이, K-푸드까지 - 이 모든 것이 축제의 독특한 한국적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방문객들은 행사에 참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다.

주최 측은 제2회 '사할린 나물' 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사할린 한인들의 문화가 지역 주민들의 문화 정체성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다고 만족감을 표했다.

주최 측에게는 6월이 매우 바쁜 달이었다. 축제를 위해 나물을 채취하는 한편, 러시아의 날 맞아 6월 12일에는 시공원에



서 한민족 요리, 캘리그라피, 종이공예 활동교실을 열었고 한글로 이름 쓰기 체험을 진행했다. 이어 6월 13일에는 사할린주 민속창작센터에서 열린 '러시아의 민족: 공예에서 음식까지' 박람회에 참가해 다양한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바쁘고도 보람찬 시간들을 보냈다.

(본지 기자)
(이예식 촬영)

코르사코브에서 한식 축제 열려

러시아 민족 단결의 해를 맞아 코르사코브 지역에서 한식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파종철이 끝났음을 알리는 한국 전통 명절 '단오'를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의 주요 행사로 자리매김했다.



행사는 사할린주한인회(회장 박순옥)'가 주최하고, 코르사코브 시 행정부의 후원을 받았다. 개막식에서는 코르사코브 시장 나탈리아 쿠프리나, 코르사코브 지역 한인 디아스포라 회장 박창순, 사할린한국교육원 박수식 원장이 축사를 전했다.

이날 잡채 만들기 요리교실에는 약 100명이 참가했으며 조리법을 주한인협회 활동가인 김수녀 씨와 박경준 씨가 지도했다.

'아리랑' 무용단과 사할린한인문화센터 소속인 '하늘'타악기 팀의 신명나는 공연은 축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고, 행사를



마무리하며 모든 내빈과 참가자, 주최 측이 함께 어우러져 한국 전통원무 '강강술래'를 추었다. 이 춤은 민족 간 화합과 우정의 상징이 되었다.

(본사 기자)
(사진 사할린주한인협회 제공)

광복 80주년 맞아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러시아지역 독립유공자

현재 한국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는 노령계열 175명이며 그 중 후손 확인을 기다리는 독립유공자 137명이다.

김 정 옥

관리번호	952698 후손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성명	김 정 옥	한자	
이명	없음	성별	남
생년월일	미상	사망년월일	1921-12-04
본적	함경남도 이원		

공훈록

1921년 3월 이후 서간도 군비단(軍備團)은 본거지인 길림성(吉林省) 장백현(長白縣)을 떠나 이만에 집결했다. 이후 자유시(自由市)를 피해 각지로 분산한 군인들 가운데 연해주에 모인 상해파 인사들과 연합해 독립군 양성을 추진했다. 이들은 1921년 9월 이만에서 고려의용군사회의를 조직하고 산하에 사

관학교를 설립했다. 그리고 고려의용군사회의는 이 사관학교에서 교육받은 생도들을 기반으로 대한의용군을 조직했다.

1921년 말 이만 남쪽 스톱스크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과 러시아 백군은 하바롭스크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시작했다. 첫 공격지점은 이만이었다. 1921년 12월 4일 대한의용군 제2중대는 이만을 방어하기 위해 이만전투에 참가했다. 이 전투에서 제2중대는 일본군의 지원을 받는 백군과 전투를 벌이다 3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전사했다. 이때 제2중대 중대원 김정옥도 이 전투에서 전사 순국했다.

정부는 2020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 10월혁명 10주년과 쏘베트고려민족(십월혁명십주년 원동기념준비위원회 편찬, 1927) 70~75면
- 러시아혁명기 원동해방전쟁과 한인부대의 활약(윤상원, 한국근현대사연구, 한국근현대사학회, 2013), 667~676면.

요지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

(편집 이철수)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채석강 / 이병초

너 시방 거기 있냐고
파도 겹겹이 수천 번을 들이받아도
그녀는 영 말이 없네

눈이 매운지 이냥 튀어오르는 파도
헛발질이 주특기인지 밀려오는 족족
넌다 부서지며 백발이나 뒤집어쓰는 파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미치게 들이닥치며 절벽
무릎께에 박살나 수만 마리 음표로 튀는 숨결들을

검은 바위 바위에 골고루 퍼서 말리는 갯비린내여
“프랑스 연극 중에 열쇠 찾는 소극이 한 편 있습니다. 한 남자가 조명 아래 뭘 찾고 있는 거죠. 바닥을 아무리 찾아 헤매도 자신이 찾는 열쇠만큼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지나가는 행인이 그냥 지나치려다 묻습니다. 뭘 찾는 중이냐고. 열쇠 찾는 중이라고 말하니 행인 역시 도와주

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제 둘은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번잡스럽기 짝이 없는, 코메디가 따로 없죠. 그렇게 한참을 찾아 헤매다 문득 행인이 정신을 차리곤 질문합니다. 그런데 우린 지금 계속 이 밝은 조명 밑에서만 찾고 있는데, 혹시 이 조명 밑에 떨어뜨린 건 확실하냐고 물어요. 열쇠 주인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조명 밑인지 저기 어두운 쪽인지는 물론 모른다고 대답을 합니다. 아니 그럼 왜? 일단 밝은 쪽이 뭐가 보여도 보일 것 같으니, 계속 조명 아래 밝은 쪽만 찾고 있다고 말하지요. 공연은 끝. 참 단순한 공연이 아닐까 싶네요.

저는 한국 문학의 비평이 딱 이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비평을 하시는 분들은 제법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박사 옷이 그렇게 평론가들에게 힘을 주는 줄은 모르겠지만, 창작자의 고통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일진대, 한국 사회는 어설픈 카르텔에 관대한 것 같습니다. 대부분 자신이 전공한 연구를 빔대 작품을 분석하지요. 무조건 뼈딱한 시선을 던지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한 때 시니피앙, 시니피에, 시물라시옹, 시물라르크, 언표, 언의, 메타포, 풍크툼 뭐 이런 불어를 기반으로 한 미학 용어들이 판을 쳤지요. 자연스럽게 소쉬르며 바르트, 지젝, 라캉, 데리다는 아이돌급 인기를 얻었지요. 그러니 한국에서의 비평이라 함은 자신들이 가진 일단의 용어들을 선별한 뒤, 문학과 사회에 덧대 아주 고급진(?) 용어들로 채우기 일쑤였지요.

언젠가부터 전 이런 발상이나 태도가 말짱 짱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유교주의의 폐단은 이렇게까지 묵은 호패처럼 위계를 만들고 일반인들이 도통 모를 언어들로 자신들의 유리한 지형을 그리고 있더군요. 밝은 쪽은 자신들이 아는 세계였다는 걸 텐데, 어디 우리 사회가 아니 우리의 삶이 과연 그렇게만 비춰지고 있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병초 시인의 시를 소개한다는 게, 제가 역시 좀 멀리 왔습니다. 시는 재즈에 가깝습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면 역시 스윙이 나오지요. 왼손가락들이 베이스로 균형을 잡는다고 보다, 왼손 베이스의 화성이 종종 틀려야 맞는 겁니다. 그래야 그걸 다시 복구시키려고 뻔뻔하게도 화성과 대위가 싱크페이션을 만들지요. 우리의 인생처럼, 좀 어긋나면서 뭘 깨닫고, 그렇게 발악발악 소리지르며 사는 게 인생이 아닐런지! 제가 이병초 시인의 시를 좋아하는 이유거든요. 굉장히 부박스러운 거 같으면서도 어떤 한 순간의 준엄한 시선으로 ‘격’을 달리하거든요. 시선과 말씨는 다르지만, 백석, 서정주, 조지훈에 이은 굉장한 시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상한 분들이 시단의 위편에서 너무 오랫동안 노닥거리는 게 역시나 전 그게 불만인 거고.

‘채석강’을 세 번 읽었더니 파도 소리가 다 들립니다. 수만 개의 파도 조각들이 이리 튀고 저리 튀는 모습이 보입니다. 소리들만큼이나 시선 역시 알뜰 없습니다. 바위에 부딪힌 뒤, 하얗게 흘러내리는 파도의 모습이 백발처럼 힘없이 내려와 사라집니다. 이제서야 끝 모를 슬픔이 밀려 드는데, 채석강 갯비린내가 그냥 확 코끝을 찌릅니다. 죽음은 단절입니다. 그 모든 것과의 이별입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살아남은 채로 끔찍한 비극의 일상과 마주해야 하지요. C’est la vie!”

(서울에서 허진원)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ялся II фестиваль «Сахалинский намуль»

20 июн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культуры и отдыха имени Ю.А. Гагарин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развернулись площадки II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намуль».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выступил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орейцев (ЮСМО-ОК) и Сахалинское отдел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общества женщин-кореек KOWIN. Мероприятие было посвящено окончанию сезона сбора дикоросов.

Главной кулинарной изюминкой стали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приготовлению корейских салатов из дикоросов (намуль). Опытные хозяйки из мест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щедро делились секретами приготовления блюд из калужницы, лопуха и папоротника.

На сцене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разворачивалась концертная программа, в котор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разных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Они подарили зрителям зажигательные танцы, проникновенные песни и незабываемую атмосферу единства. Открыла концерт всем знакомая «Катюша», но прозвучавша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 это особенно тронуло публику.

Для тех, кто хотел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культуре корейцев глубже, работали интерактивные площадки: традиционные корейские игры,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орейской живописи. Кроме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интенсивы — роспись подставок, вышивка бисером на брелке в виде ханбока, лепка кулона «Дикорос», а также «Волшебная палочка феи» и «Веселый воздушный змей». Всё это вызвало неподдельный интерес и у детей, и у взрослых.

Аппетитные запахи витали над рядами кулинарных киосков, где индивидуальны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редлагали свежие салаты, кимчи, сундэ, горячий рамен, паровые булочки с фасолью, пян-се, манты, желе и многие другие яства. Рядом ремесленники выставили изделия ручной работы, в том числе и в корейской тематике.

Концерт, мастер-классы, народные



игры и, конечно, знаменитый К-фуд — всё это создало неповторимый колорит праздника. Фестиваль собрал множество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люди приходили семьями, с друзьями, делили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фотографировались. Организаторы с удовлетворением отметили, что второй «Сахалинский намуль» прошёл успешно и что культура корейцев Сахалина органично вплетается в общую ткань культурного кода островитян.

Надо отметить, что июнь выдался для организаторов очень насыщенным. Они занимались сбором дикоросов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й намуль», а также активно участвовали в городских мероприятиях, посвящённых Дню России. 12 июня в городском парке организация провела открытые мастер-классы по корейской кухне, каллиграфии, бумажному искусству, пробовали писать своё имя на хангыле. А 13 июн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народ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стали акти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ярмарки-выставки «Народы России: от ремесла до угощения», развернув площадки с различными мастер-классами.

Наш корр.
Фото Ли Е Сика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рошёл в Корсакове

В рамках Года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состоялся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хни, приуроченный к празднику Тано, знаменующему окончание посевных работ. Мероприятие стало заметным событием в жизни местной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Организатором мероприятия стала региональная обществен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РООСК). Фестиваль прошёл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и словами к гостям обратились глава округа Наталья Юрьевна Куприна, председатель ме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Ассоциация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Корсаковского района» Пак Чан Суни и директор Центра просвещения и культу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на Сахалине Пак Су Сик. В кулинарном мастер-класс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ста человек. Перед началом приготовления участники получили наборы, фартуки, перчатки и шапочки. Своим фирменным рецептом



популярного блюда дзяпче поделились Ким Су Не и Пак Ген Чун.

Ярким украшением праздника стали выступления ансамбля «Ариранг» и ансамбля корейских национальных ударных инструментов «Ханыль». Завершился фестиваль исполнением традицион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хоровода канкансуле, в который встали все гости, участники и организаторы. Этот танец стал символом единения и дружбы народов.

Наш корр.
Фото предоставлено РООСК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черк Николая Долгополова о легендарном разведчике,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Жизнь в триумфах и трагедиях.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1932-1998)

Николай ДОЛГОПОЛОВ

(Продолжение. Начало в №18,19, 20,21,22,23,24)

От Юрия Владимировича Андропова Ким получил личное именное оружие с подписью. У председателя КГБ СССР установились с Кимом добрые отношения. Когда Киму удавалось вырваться в отпуск, Андропов всегда принимал его для доклада в своём кабинете на Лубянке. И хотя Юрий Владимирович почти не пил, после этого следовала неофициальная часть, на которой аскет Андропов поднимал рюмку вместе с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нелегалов.

Десятилетия шли. Не могли они не нести с собой перемены. Часто печальных. Брак его окончательно распался. Почти невозможно годами оставаться один на один с ночью. Ким познакомился с местной жительницей. Сообщил об этом в Центр. Изучал ее, завербовал (да, именно так) и, получив разрешение, связал с ней судьбу. Обучил, и она помогла Киму, став радисткой-шифровальщицей.

Интересно, что с той женщиной было потом? Никаких сведений о ее появлении в Москве пока нет. Или осталась в той стране? Значит, еще одно расставание для Кима.

Человек общительный, внешне приятный, он не был обделен вниманием прекрасного пола. Жизнь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допускала подобные контакты. Но супругу любил, и не его вина, что любовь на расстоянии счастливой бывает редко.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работы в «особых условиях» складывались для нелегала по многим причинам трудно. Признаться: «Меня очень сильно тянуло на Родину. Вот даже березку иногда увижу там на улицах, хотя в тех южных краях их редко встретишь, разве что в Ботаническом саду. Вижу березку, и уж лучше я ее не видел сегодня. У меня теперь на весь день испорчено настроение, потому что так хочется поехать домой и где-нибудь там походить среди березового леса».

И во время редких отпусков это удавалось. Уезжал на свою дачу, хохлил участок в четыре сотки. Как исконный уроженец южной страны с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скапывал грядки, высаживал рассаду, не особенно расстраиваясь, что ему самому из-за предстоящего отъезда не дано будет собрать вращенные плоды. Приобрел российские привычки: часами ходил по лесу, высматривая грибы. Иногда ловил рыбу, но без всякого азарта, не стремясь во чтобы то ни стало уйти с богатым уловом. Скорее, это было спокойное и продолжительное созерцание, возможность сосредоточиться на будущем или отрешиться хоть на время от глобальных мыслей о предстоящем и снова неминуемом отъезде туда, где риск и неизвестность.

Да, Ким чувствовал, что тучи над ним сгущались. Причина оставалась непонятной. Можно предположить, что предавал кто-то из тех, кого полковник, возвращаясь временами в отпуск в Москву, считал своими. Ему сообщали, что если станет совсем невозможно продолжать, если почувствует опасность, то можно возвращаться. Он тщательно взвешивал, анализировал. Порой хотел поставить точку. И оставался. Здесь, не по своей вине, он оказался на грани трагедии, которой все-таки удалось избежать. Центр сумел предупредить Кима об опасности. Командировка длинной в десятилетия была завершена.

Начинал с нуля, был одиночкой. Рисковал. А за годы работы создал разветвленную резидентуру. Руководил сетью агентов из всех слоев общества.

В спецдосье указаны потрясающие по убедительности цифры: «За период коман-

дировки им добыты и направлены в Центр более девятнадцати тысяч листов совершенно секретных документов, а также не менее полутора тысяч подготовленных на их основе сообщений и обзоров».

Многолетний руководитель советской нелегальной разведки Юрий Иванович Дроздов, никогда не называя имени Героя-нелегала, рассказывал мне о встречах с Евгением Ивановичем Кимом уже после его окончательного возвращения.

У Дроздова было собственное мне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того, почему нелегал смог проработать так долго — с 1966 по 1989 год. Во-первых, Ким неуклонно соблюдал все правила конспирации. На последнем этапе с подачи начальника нелег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рактически прекратил все встречи с людьми из легальной разведки, работавшими в той стране. Никаких контактов — только безличные связи. Доклады нелегалов, конечно же включая Кима, минуя промежуточные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оступали только к Дроздову. Опыт работы показывал, что именно так лучше обеспечить безопасность. С этим нововведением согласились, но руководители некоторых других управлений на Юрия Ивановича обижались. Генерал-лейтенант Николай Леонов, главный аналитик разведки, высказывал свои претензии. Дроздов твердо стоял на своем: нелегалы действовали результативно, пошли серьезные разработки. К тому же начальник Управления «С» опасался предательства. Как показали дальнейшие события, опасения были далеко не напрасны. В разведке чувствовали огромную угрозу, над страной нависшую.

Ким переживал распад страны, которой служил, как личное горе. Не мог смириться, принять вроде бы логичные объяснения. Не все было понятно ему в новой жизни. Не роптал, нет. Но задумывался, как такое могло произойти. Ведь и его родная разведка рисковала не уцелеть, когда кто-то решил, будто в изменчивом мире наступило всеобщее братство.

Боль за державу была с ним, не уходила. Он не давал воли эмоциям, хранил глубоко в себе. Наверняка от этого нести тяжесть всех утрат было еще сложнее.

Наступил критический промежуток и в жизни огром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Юрий Иванович Дроздов вспоминал вечер после вручения Евгению Ивановичу Звезды Героя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 Крючков и другое начальство уехали. Мы остались вдвоем. И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мне признался: «Если бы тогда мне сказали, что все этим закончится, я бы никогда не поверил». Это все заставляло его переживать, страшно переживать, он знал, что на нем висит, какие возможности, что нужно делать. Но пришлось работать там еще».

Вернувшись окончательно домой,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помогал молодым приемникам, выбравшим ту же дорогу. Начальник отдела Ким был с ними предельно искренен. Доносил до молодых ребят открытую им на собственном примере истину. У них разведчики работают за деньги, у нас — за Отечество. Надо всегда оставаться конспиратором, но иногда приходится превращаться и в авантюриста. Быть готовым к нестандартным ситуациям, которые могут возникнуть совершенно неожиданно. Именно они показывают, на что способен разведчик-нелегал.

Источник: Долгополов Н.М. Легендарные разведчики-4. М., 2024. С. 93-113. —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сер. биограф.; вып. 2003).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извал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молодёжи

Бум на рынках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 и акций увеличил неравенство в распределении активов, в результате чего многие молодые люди оказались в невыгодном положении.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Ли Чжэ Мён, выступая 23 июня на заседании кабинета министров. Бум 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ой отрасли привёл к стремительному росту фондового рынка, однако молодое поколение – самая многочисленная группа населения страны, оставшаяся вне этого бума. Молодёжь имеет мало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накопления активов,- отмети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с болью признать чувство изоляции, которое испытывают молодые люди, говорящие, что рекордно высокие бонусы и показатели KOSPI кажутся им историями из другого мира»,- добавил Ли Чжэ Мён. Он призвал принять комплексные меры для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молодёжи нов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во всех сферах жизни.

СК подтвердила стремление развивать ядерные силы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будет развивать свои ядерные силы, которые являются «ядром военного суверенитета» страны и «ключевым элементом реализации стратегии сдерживания войны». Как сообщило 23 июня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б этом заявлено на втором пленуме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проходившем с 20 по 22 июня в Пхеньяне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Ким Чон Ына. Участники пленума заявили, что «тщательное отстаивание позиции государства, обладающего ядерным оружием,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правильным и единственным способом активно и уверенно справляться с непредсказуемой международной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ей»,-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Пхеньян подтверди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враждебной страной», и резко раскритиковал военный альянс между Сеулом и Вашингтоном. Ким Чон Ын подчеркну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укрепления границ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овых военно-морских баз и других военных объектов для усиления обороны,- сообщает ЦТАК.

Общество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возглавит Ин Ё Хан

Бывший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от оппозиционной партии Сила народа Ин Ё Хан избран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ществ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РК. В ходе голосования, состоявшегося 22 июня, его поддержали большинство членов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организации. После утверждения президентом Ли Чжэ Мёном, который является почётным президентом Общества Красного Креста, Ин Ё Хан будет возглавлять организацию в течение трёх лет. Ин Ё Хан (Джон Линтон) является правнуком миссионера Юджина Белла, прибывшего в Корею из США в XIX веке. Его семья на протяжении четырёх поколений живёт и работает в Корее, внося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развитие образ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Он родился в 1959 году в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окончил медицинский факультет университета Ёнсэ и работал врачом, прежде чем заняться политикой. С 2012 года Ин Ё Хан является гражданином РК.

Альбом Arirang признан мировыми музыкальными изданиями

Пятый студийный альбом группы BTS под названием Arirang вошёл в число лучших музыкальных релизо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ы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 версии ведущих зарубежных музыкальных изданий. Как сообщило продюсерское агентство Big Hit Music, 12 июня альбом был отмечен американским изданием о поп-культуре Complex, а 13 июня он вошёл в списки лучших альбомов 2026 года по версии британской газеты Telegraph. Затем он был назван одним из лучших музыкальных релизов американским музыкальным журналом Rolling Stone и британским музыкальным изданием NME. Журнал Rolling Stone отметил: «В альбоме Arirang великолепно воплощён традиционный корейский колорит через призму современной музыки». Издание NME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ло BTS как «величайший бойз-бэнд в мире», а газета Telegraph назвала коллектив «лицом К-рор культуры».

Пианист Им Юн Чхан – лауреат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Им Юн Чхан стал лауреатом престижной немецкой премии в области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Opus Klassik 2026 в номинации «Инструменталист года». Как объявила Немецкая ассоциация содействия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е, пианист получил награду за свой альбом «И.С. Бах: Гольдбергские вариации», выпущенный в феврале этого год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эту же награду получил друго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ианист Чо Сон Чжин за альбом «Равель: Полное собрание сольных фортепиан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Премия Opus Klassik присуждается с 2018 года в 30 номинациях.

"Превзойти мир" и нарастить ядерные силы: В Пхеньяне прошел пленум партии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одтвердила курс на дальнейшее укрепление своего ядер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и расширение военных возможностей страны. Такие сигналы прозвучали по итогам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Пхеньяне расширенного пленума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который прошел под председательством лидер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Развивать ядерный щит, построить новый корабль, укрепить границу

Как сообщило Центральное телеграфное агентство Кореи, пленум шел в течение трех дней - с 20 по 22 июня, а сообщили об этом сегодня. Участники пленума подтвердили, что дальнейшее расширение и укрепление ядерных сил остается ключевым принцип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итоговых документах отмеча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непрерывно расширять и укреплять ядерные силы" и в полной мере использовать статус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Подчеркивается, что "непрерывное расширение и укрепление ядерных сил, а также действия, в полной мер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татусу ядерн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являются наиболее точным и единственным способом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динамичные изменения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и".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такж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в ядерной сфере будут ускоренно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более масштабные, инновационные и вдохновляющие планы".

Сам Ким Чен Ын в заключительном выступлении заявил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продолжать работу по наращиванию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вооружений. По словам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необходимо "безостановочно,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и по-своему осуществлять работу по дальнейшему наращиванию мощных оборонных средств", поставив целью достижение "уровня, способного превзойти мир".

Пленум также подтверд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реш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воен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 от 4 апреля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нового боевого корабля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около 10 тысяч тонн, который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документах называется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ракетным крейсером".

Кроме того, Ким Чен Ын потребовал завершить работы по укреплению и фортификации южной границы страны, а также построить новые базы для Военно-морских сил КНДР.

США, Южная Корея и "угроза ядерной войны"

Интересной особенностью пленума ЦК ТПК стало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енное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й и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ой обстановке. Пхеньян вновь обвинил США и Южную Корею в наращивании военной активности и создании угрозы безопасности КНДР.

В документах пленума утверждается, что Вашингтон и Сеул расширяют воен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оводят совместные учения и продолжают модернизацию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уделила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нсультативной группы по ядерным вопросам (NCG), созданной США и Южной Кореей.

В Пхеньяне считают, что деятельность этой структуры свидетельствует о подготовке сценариев применения против КНДР как ядерных, так и обычных вооружений.

В документах пленума также отмечае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трого придерживаться линии партии, которая

ранее "официально определила Южную Корею как наиболее враждебное государство". Были также раскритикованы устремления Сеула по созданию, при содействии США, собственной атомной подводной лодки.

В целом КНДР вновь подтвердила курс, провозглашенный после отказа от концепции единой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и перехода к определению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как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двумя враждеб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Экономика: ставка на угольную промышленность

Помимо военных вопросов значит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экономике.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ов названо развитие уголь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Руководство КНДР решило начать с будущего года масштабную программу модернизации шахтерских поселков по всей стране.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наряду с программой "Местное развитие 20×10" необходимо открыть "еще один новый фронт" преобразований, связанный с модернизацией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и. По его словам, обновление шахтерских поселков станет столь же масштабной задачей, как и продолжающаяся програм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временного жилья в сельских районах страны.

Власти рассчитывают не только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угольной отрасли, но и улучшить условия жизни работников шахт.

Кадров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озвращение Чо Ён Вона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заметных итогов пленума стали кадровы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стали неожиданностью для многих зарубежных наблюдателей.

Так, с должности секретаря ЦК ТПК, заведующего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инструкторским отделом и члена Президиума Политбюро был освобожден Ким Чжэ Рён. Официальные причины его отставки не раскрывают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на этот ключевой пост был назначен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Чо Ён Вон, которого мно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считают одним из самых влиятельных людей в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политической системе и одним из наиболее доверенных соратников Ким Чен Ына.

Чо Ён Вон ранее долгие годы работал именно в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инструкторском отделе - структуре, которая отвечает за контроль над партийным аппаратом, кадровую политику и дисциплину.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он считался фактическим куратором партийного аппарата и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ближайшего окруж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лидера.

Зарубежные эксперты связывают его возвращение в партийное руководство с недавним коррупционным скандалом в армии. Во время пленума было объявлено, что заместитель начальника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Главног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й армии генерал-майор Пак Хи Чхоль будет передан п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м органам по обвинению в коррупции.

Кроме того, был освобожден от должности заместитель заведующего отделом ЦК ТПК Хан Гван Сан. Руководителем отдела лег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значен Ли Хо Рим.

Также произошли изменения в составе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партии: ряд кандидатов были переведены в статус членов ЦК, а также были избраны новые кандидаты в члены Центрального комите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РК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в мире по числу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 данным Союз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ассоциаций, в 2025 году в мир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9.281 междунар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491 из них провела РК, что на 43,2% больше показателя 2024 года. В результате РК поднялась на четыре позиции в мировом рейтинге - с шестого места в 2024 году до второго, а её доля увеличилась с 3,87% до 5,29%. США провели 665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заняв первое место. Австрия – на третьем, Япония – на четвёртом месте. В Сеуле было проведено 317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и он занял третье место среди городов мира, уступив Вене и Брюсселю. Пусан занял 22-е, а Инчхон - 42-е место.

KBS World

В Кояне пройдёт фестиваль поп-культуры MyK Festa

С 25 по 28 июня в Коя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пройдёт масштабный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поп-культуры MyK Festa 2026, охватывающий K-POP, телесериалы, еду, косметику и моду. Как сообщ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спорта и туризма, фестиваль, проводимый второй год подряд, служит универсальной платформой, где как поклонники, так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могу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широким спектром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программе фестиваля концерты MyK Live, которы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26-27 июня. Рядом с концертной площадкой более ста компаний 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учреждений развернут продажу своей продукции - от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рамен до одежды и средств по уходу за кожей. В отеле Sono Calm Goyang пройдёт бизнес-форум, который свяжет около 200 ответственных компаний, стремящихся работать за рубежом, со 140 зарубежными партнёрами.

KBS World

Любовь к Родине – это действи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ходит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развития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стартовал региональный форум, главной темой которого стало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как вектор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На мероприятии собрались две сотни участников – ветеранов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власти, общественных и молодеж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учреждений образования и культуры и всех, для кого патриотизм – не абстрактная любовь к Родине, а деятельное участие.

– Мы – одна семья: те, кто на передовой, и те, кто обеспечивает надежный тыл. Мы поддерживаем наших бойцов, снабжаем всем необходимым, заботимся об их семьях. История учит: именно на островах была поставлена точка во Второй мировой войне. И нам, внукам и правнукам победителей, предстоит завершить сегодняшнее противостоение. У каждого из нас свой фронт, но цель одна – защита Родины, нашей культуры, языка, ценностей и будущего. В этом единстве рождается сила, которая делает нас непобедимыми. Все для Родины! Все для победы! – обратился к участникам форума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 первых дней спецопераци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ставляет на передовую технику и оборудование.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носят бизнес и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Сопричастность» более полусотни волонтерских групп собирают гуманитарные грузы – уже отправлено порядка тысячи тонн.

Об участии в гуманитарных миссиях рас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молодежного крыла «Народного фрон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Константин Ачмизов. В феврале ребята отправились помогать жителям Луганс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 Доставляли питьевую воду, восстанавливали храм, кололи дрова, ремонтировали крыши, помогали по хозяйству. Много общались с людьми. И особенно запомнилась пожилая женщина из Лисичанска. Она узнала, что мы с Сахалина, и расплакалась. Ее внуки уехали в Киев, а помощь пришла от незнакомых ребят с другого конца страны. С миссий молодежь всегда возвращается другой – с более глубоким пониманием жизни и того, что действительно важно, – поделился Константин.

Активистка «Движения первых» Алена Комарова рассказала о проекте «Хранители истории». Ребята берут шефство над памятниками, проводят патриотические акции, занимаются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м территорий. Ценности любви к Отечеству прививают также в «Юнармии», центрах «Авангард» и «Воин». Ключевой принцип работы – развивать патриотическое воспитание не для детей, а вместе с ними.

–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центр «Авангард» уже четвертый год проводит сборы по начальной военной подготовке. В этом году к нам впервые приехали ребята из Донецкой Народной Республики 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На курсе говорим с молодежью не только о тактике, но и о воинском долге, о долге перед Родиной, – отметил ветеран СВО, заведующий отделом исторического парка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Юлиан Красавин.

Итогом форума станет проект комплексной системы патриотического воспитания, чтобы каждый житель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г внести свой вклад – в обще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лужбе,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проектах,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е или волонтерстве.

«Русский крест» с Евгением Мироновым представили на Фестивале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 20 июня по 5 июля 2026 г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удет центром театральной жизни.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тартовал VII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ньше масштабное культурное событие проходило в Хабаровске. Но три года назад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Евгений Миронов – народный артист России и руководитель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решили сделать фестивальной столицей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Третий год подряд наш регион принимает большой театр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У нас по-настоящему любят и ценят театр и великую русскую культуру. На две недели Сахалин станет ее центром. Зрители увидят лучшие спектак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столичные постановки. Фестиваль охватит городские площадки, а в творческих лабораториях рождаются новые произведения, – сказ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день от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ские театралы с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игрой Евгения Миронова в спектакле-концерте «Русский крест». Поэма о простом человеке из деревни в прочтении народного артиста соединилась с неподражаемым звучанием фольклорного ансамбля «Комонь».

– На Сахалине очень теплый и благодарный зритель.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выхожу здесь на сцену. И, конечно, нельзя не отметить вниман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и губернатора к культуре. Здесь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умают о развитии – это чувствуется, – поделился Евгений Миронов.

В афишу фестиваля вошли 11 лучших спектак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театров и столичные постановки.

Зрители увидят «Счастливые дни» – авторский вечер народного артиста РФ Виктора Сухорукова от Московск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мени Ермоловой, а также «Вера Live» и «Белые ночи» от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мени Комиссаржевской. Два концерта даст заслуженный артист РФ Сергей Чонишвили совмест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артистами джазового и эстрадно-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ов.

– На фестивале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настолько насыщаешься театром, что потом еще долго живешь этим – вспоминаешь, переживаешь, возвращаешься мыслями. Невероятно, что такие события проходят на Сахалине. И особенно ценно, что к нам приезжают известные актеры и сильные труппы. В Москве на такие постановки попасть сложно, а у нас это становится доступным, – поделилась любительница театра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Екатерина Глотова.

Фестиваль – это не только насыщенная афиша, но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служителей сцены. Артистов дальневосточных театров ждут мастер-классы, а также режиссер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 Заранее никто не знает ни тему, ни материал, ни друг друга. В командах артисты из разных городов, и это дает особую энергию. Всего за два-три дня нужно создать эскиз и представить зрителю. Участие в таком проекте – это мощны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импульс, – поделился артист Мирнинского театра Дмитрий Желнин.

Отметим также, с 23 июня по 2 июля пройдет программа «Театр в городе». Сахалинцев и гостей ждут спектакли, концерты и перформансы под открытым небом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рсакове и Охотском. Вход свободный.

На Сахалине открылся уникальный авиационный учебный центр по подготовке операторов БПЛА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 работу авиационный учебный центр (АУЦ) по подготовке операторов беспилотников. Площадка базируется на первом в России дронпорте «Пушистый» 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е по техническим видам спорта. Занятия проводят инструкторы с опытом работы в зоне СВО и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для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Первая группа курсантов приступила к обучению 22 июня.

– У нас открылся учебный центр на базе предприятия «Аврора – БАС», дочерней структуры нашей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которая обслуживает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Это дочернее общество занимается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ей и будет решать как народно-хозяйственные, так и оборонные задачи. Мы считаем, что это крайне ответственная задача – обуч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способных обеспечивать противовоздушную оборону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переди у нас большие планы: борьба с пожарами, экологические задачи, вопросы кадастрового учета и распределения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ов. Для подготовки кадров в этом широком спектре и создан учебный центр,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получить профессию в центре создана уникальная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ая база, разработаны гибкие тарифы и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живания в общежитии на территории аэродрома. Программа рассчитана на три недели, из которых две отведены на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По окончании выдается документ 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подготовке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образца.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виа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 БАС» Дмитрий Третьяков рассказал, что центр создан по поручению главы региона в рамках развития беспилотной авиации на Сахалине,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 Для этой отрасли нужны кадры, и как раз АУЦ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их. Первые три или четыре потока – это силовики, потом есть две группы гражданских. Дальше мы планируем масштабировать эту практику на вес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отому что на «Пушистом» для этого есть все условия, начиная от материально-технической базы, инструкторов, общежития и столовой на 100 мест. То есть, сюда можно спокойно приезжать из других городов, здесь проживать и проходить обучение, – пояснил Третьяков.

На аэродроме оборудован класс теоретической подготовки с наглядными пособиями и образцами дронов, где изучают конструкцию аппаратов, аэродинамику, метеорологию и правила использования воздушн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Также есть класс с современными тренажерами, где курсанты сначала симулируют полеты на компьютере и отрабатывают навыки, не боясь ошибиться. После этого слушатели выходят на тактические поля,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будущей специальности: военная специфика, гражданские задачи ил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е съемки. Там уже проходят практические полеты в ре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Сейчас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начинают обучение курсантов из силовых структур.

– Обучаем их в основном пилотированию на FPV-дронах самолетного типа и обычных разведывательных беспилотниках. Сначала теория, потом практика на тренажерах, и выходим уже в пол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трабатывать мастерство в реальных условиях. Сейчас у нас два пилота-инструктора, которые имеют большой опыт как на гражданских дронах, так и на FPV. Они постара-

ются максимально передать свои навыки и опыт нашим курсантам. Самая главная задача – научить безопасной работе с БПЛА, то есть безопасно взлететь и безопасно посадить, – рассказал методист по летной работе Эдуард Абрамов.

Открытие учебного центра стало новым этапом развития области как лидера в сфере беспилотных авиационных систем. Сахалин первым в стране внедрил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й правовой режим, позволяющий беспилотникам работать в едином воздушном пространстве с гражданскими самолетами. Сахалинцы также совершили уникальный перелет через Татарский пролив на материк. Теперь накопленный опыт передают через учебный центр, готовя операторов для укрепления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и решения широкого круга гражданских задач.

Добавим, ежегодны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форум беспилотных аппаратов всех сред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 2026» пройдет 3–4 июля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на аэродроме «Пушистый». Он станет глав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демонстрации сценариев применения беспилотников. В регионе уже отработано более семидесяти таких сценариев. С помощью дронов площадь лесных пожаров за три года сократилась в сорок раз. Беспилотники помогают предотвращать паводки, искать людей, доставлять лекарства в труднодоступные места, выявлять свалки и дорожные дефекты.

На форуме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ют морским робототехническим решениям и гидроакустическим станциям для нефтегазовой отрасли. Также обсудят безкипашную логистику на море и в воздухе, что критически важно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Кроме того, в рамках форума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сценарии защиты объектов кри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от морских и воздушных дронов с применением средств ПВО и радиоэлектронной борьбы.

Воспитан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го Центра цирк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завершили сезон большим шоу

Первый открытый концерт Центра цирк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состоялся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е представление «Сахалин. История обретенной мечты» стало ярким завершением творческого сезона. На манеж вышли воспитанники центра, которые за полтора года обучения освоили сложные цирковые жанры и подготовили насыщенную программу для зрителей.

Работа над постановкой началась около трех месяцев назад. В театрализованном представлении были задействованы все воспитанники Центра цирк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а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 манеж вышли около 50 юных артистов. Для коллектива это стало первым большим публичным выступлением перед зрителями. Юные артисты представили номера в жанрах хореографии, воздушной акробатики и эквилибристики.

—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 дает детям все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развития. У нас можно заниматься спортом, творчеством, наукой и искусством. Очень хочется, чтобы молодые люди видели свое будущее здесь, на островах, находили любимое дело и оставались жить и работать на родной земле,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Авторами сценария и режиссерами постановки выступили руководитель центра Владимир Чура и помощник режиссера, педагог Ольга Колесникова. Вместе с коллективом они создали полноценный спектакль, объединивший цирковое искусство и историю родного края. Первое большое выступление воспитанников центра стало важной вехой в развитии коллектива.

— Для нас это не отчетный концерт. Мы просто рады встрече со зрителями. Этот спектакль посвящен Сахалину и вере в мечту. Мы хотели показать детям и взрослым, что любые цели достижимы, если трудиться, не сдаваться и верить в себя. Особенно приятно видеть, какого уровня добились ребята всего за полтора года занятий, – рассказал Владимир Чура.

Особую атмосферу в зале создавала поддержка зрителей. Здесь собрались родители, друзья и близкие юных артистов,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всего года наблюдали за их успехами и помогали преодолевать трудности. Для многих семей цирковое искусство стало важной частью жизни.

— Мы пришли в центр просто попробовать. Сначала это был интерес, а потом ребенок буквально загорелся цирком. Здесь детям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равится. Это необыч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которое открыв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азвития.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на Сахалине появился такой центр и что заниматься в нем могут все желающие, – поделилась мама одного из артистов Дарья Гольчева.

Отметим, Центр циркового искусства был создан по инициатив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и сегодня является уникальной площадкой для твор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детей. В коллективе работают восемь педагогов, а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ит 120 воспитанников. Все занятия проводятся бесплатно. Программа рассчитана на пять лет и учитывает возраст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и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каждого ребенк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완도쌀, 러시아 수출길 '15번째'... 교민 입맛 잡았네

김미남 전남 완도농협 조합장(오른쪽 세 번째부터)과 최대근 NH농협 전남 완도군지부장 등이 15일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러시아 수출 선적식에서 쌀 판로확대에 온힘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전남 완도쌀이 러시아 수출길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전남 완도농협(조합장 김미남)과 NH농협 전남 완도군지부(지부장 최대근)는 15일 완도군농협연합 미국종합처리장(RPC)에서 '완도자연그대로미(米)' 러시아 수출 선적식을 열었다.

이번 선적식은 2020년 러시아 수출을 시작한 이후 15번째다. 완도자연그대로미는 2018년 할랄 인증을 받은 뒤 말레이시아에 처음 수출됐고, 2019년 미국에 이어 2020년 러시아까지 판로를 넓혔다.

특히 러시아 사할린주에 거주하는 교민들 사이에서 고국에서 건너온 품질 좋은 쌀로 인정받으며 꾸준



히 수요를 이어가고 있다. 완도농협은 현재까지 러시아에 쌀 223 t, 5억5800만원어치를 수출했다.

김미남 조합장은 “국내 쌀 시장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완도쌀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러시아 수출을 이어가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품질관리와 생산기반 확충으로 완도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실익 증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추상과 구상 사이의 경계선... 고려인 2세가 '그리던 바다'



인천 도든아트하우스에서 열리고 있는 개인전 '그리던 바다' 전시장에서 본인의 작품 앞에 선 허동백 작가. 2026.6.14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인천 중구 개항장(開港場) 일대는 '디아스포라'의 공간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곳이 우리나라의 근대 비교적 이른 시기에 다양한 이주민이 모여들고 또 떠나갔던 관문이면서 삶의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곧 제물포구로 행정구역명이 바뀔, 인천 중구 개항장 문화지구에 자리 잡은 '도든아트하우스'에서 고려인 2세 허동백(Khe Don Bek·75)의 개인전 '그리던 바다'가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 작품에서 가장 눈길을 사로잡는 부분은 시간의 궤적을 표현한 무수한 사각형의 미세한 픽셀이다. 정교한 붓터치에 기반해 아크릴 물감으로 표현한 초현실적 분위기의 화면이 묵직한 시각적 잔상을 남긴다. 추상과 구상의 경계에서 초현실적 분위기로 묘사된 도시와 바다 등의 장소도 인상적이다.

허동백의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그의 가족사를 알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참고할 필요는 있다. 그의 아버지는 1921년생으로 고향은 울산, 어머니는 1933년생으로 함천이 고향이다. 하지만 허동백의 고향은 러시아 사할린 코르사코프 바닷가 마을이다. 2000년 그의 부모님의 영주귀국과 동시에 그도 한국행을 택해 한국에 정착했다.

러시아에서 중등교육기관 미술교사로 활동했던 그는, 현재 안산 반월공단의 한 필름제조 업체에서 공장장으로 일하고 있다. 다행히 공장에 작업실을 마련해준 회사 대표의 배려로 한국에서도 현재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허동백은 러시아의 화가 파벨 니콜라예비치 필로

노프(1883~1941)의 작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했다. 러시아에서는 유화물감을 고집하는 현실주의 화풍을 추구했다. 하지만 한국에 온 후 그는 아크릴물감을 처음 접했다. 건조하는 시간이 크게 필요치 않은 아크릴 물감은 그에게 신세계였다. 그는 왕성한 창작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 물감이 마르길 기다리는데 긴 시간이 필요한 유화 물감을 과감하게 버렸다. 2000년대 이후 아크릴 물감만을 사용하고 있다. 화풍도 바뀌었다. 고전적인 리얼리즘에서 현재는 추상에 가까운 초현실주의 화풍으로 점점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는 작품 속 대비(contrast)를 중요하게 여기는 듯했다. 거대한 패턴에 작은 픽셀을 배치하고, 대자연의 풍경에 작은 사람을 그려 넣거나, 따뜻한 색과 차가운 색을 적절히 배치해 화면에 시각적 긴장감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화면을 변주한다.

70세가 넘은 비교적 고령의 나이임에도 그는 자신의 노동집약적인 작업 방식에 전혀 부담을 느끼고 있지 않다고 했다. 오히려 더 큰 크기의 작품을, 더 많은 작품을 그리고 싶다고 했다.

그의 이름과 작품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그는 한국에서도 20년 넘게 작업과 전시를 이어왔음에도 아직 작품 판매를 하지 않았다. 대규모 개인전을 치르고 난 뒤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그에게 바람을 물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의 작업을 집대성할 수 있는 대규모 개인전을 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캔버스가 지금도 작다고 느껴집니다. 대작으로 대중과 만나는 기회를 만났으면 합니다.”

(출처: 경인일보)

조선인 136명 희생된 조세이 참사... 일본 학자가 '조선인 자료집' 낸다



일본 역사 연구자 나가사와 시게루가 지난 19일 도쿄 자택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사건 당시 조선인 관련 자료를 설명하고 있다.

일본 역사 연구자 나가사와 시게루(75)는 지난 19일 도쿄 자택에서 부서질 듯 낡은 84년전 '쇼와 17년(1942년) 수신 문서철(來信簿)'을 조심스럽게 넘겼다. 그해 2월3일,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해저탄광 수몰사고로 강제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과 일본인 180여명이 숨졌다. 이 문서철에는 고국의 유족들이 가족의 생사라도 알려고 탄광 쪽에 보낸 편지 목록이 남아 있다. 나가사와는 “당시 문서에서 급보를 접한 조선인 가족들이 ‘문의 편지’를 보낸 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편지 원문은 남아 있지 않지만 가족의 생사를 걱정하는 절절한 마음이 전해져 가슴을 울린다”고 말했다.

이날 나가사와가 공개한 조세이탄광 조선인 노동자 관련 자료 40여책에는 참사 당시 탄광 쪽이 펌프로 배수를 시도하는 긴급한 움직임과 열흘여 뒤 열린 합동 장례식, 조선인 희생자 출신지에서 보낸 문서, 일본 내 감독 관청의 지시 사항 등이 담겨 있었다. 또 조선인들이 14~15회에 걸쳐 탄광에 동원되는 과정에 일본인 관리자들과 대규모 난투극이 벌어지는가 하면, 가혹한 폭행에 시달리던 노동자들이 달아나 업체 쪽이 대책 마련에 나선 내용 등도 담겼다.

조세이 탄광 참사는 1942년 해저 탄광 내부로 바닷물이 들어와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던 조선인 136명과 일본인 47명이 숨진 대규모 수몰 사고다. 일본 시민단체 '조세이 탄광의 물비상(수몰 사고)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새기는 모임)이 수십년 노력 끝에 80여년 간 땅 밑에 묻혔던 갱도 입구를 찾아냈다. 당초 일본 정부가 참사 진실 규명과 유해 반환 움직임에 소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월 '조선인 희생자 등의 디엔에이(DNA)' 감정에 협조를 약속해 한·일 정부 차원에서도 주목하는 사안이다.

조세이탄광 수몰 사고는 애초 현지 향토사학자들을 중심으로 '탄광 수몰사태: 쇼와 17년 조세이탄광 재해에 관한 노트'(야마구치 다케노부, 우베 지방사 연구, 1976년)와 구술기록 '바다가 터졌다!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조난의 기록'(가지무라 히데키, 재일조선인운동사연구, 1982년) 등 일부 연구 자료들이 남았다. 하지만 식민지 조선에서 끌려와 해저탄광에서 참혹한 죽음을 맞은



조선인들의 실상을 보여줄 자료는 매우 부족했다.

나가사와는 그동안 연구·수집을 통해 축적한 방대한 자료들을 책으로 엮은 '조세이탄광 조선인 관계 자료집'을 다음달 일본에서 출간할 예정이다. 조선인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짐작할 수 있는 탄광 운영 일지와 위험 천만한 탄광 운영 실태, 부실하기 짝이 없는 조선인 급여 체계 등 일반에 거의 공개된 적이 없는 문서 자료들이 수록된다. 나가사와는 “방대한 원본 자료에서 조선인 부분만 선별해 책을 엮었다”며 “주로 대참사를 일으킨 당사자(탄광 사업주) 쪽 내부 자료로 대부분 연구자들조차 보지 못한 문서군”이라고 설명했다.

나가사와는 '재일조선인 운동사 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해온 역사학자로 '석탄 통제회 극비문서·전시하 조선인, 중국인, 연합군 포로 강제연행 자료집', '전후 초기 재일조선인 인구조사 자료집' 등을 펴냈다. 청년 시절, 재일조선인 사학자 박경식(1922~1998) 씨가 쓴 강제동원 관련 책을 본 뒤 충격을 받고 “이게 진짜냐”는 당혹감과 놀라움 속에 한·일 과거사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했다. 2022년에는 태평양 전쟁 뒤 소련 사할린에 남겨진 한인 문제 해결에 평생을 바친 재일동포 이희팔(1923~2020) 선생의 구술과 관련 자료를 담은 책 '유언'을 썼고, 한국에서 번역본으로 출간했다.

이번 자료집을 계기로 희생자 수와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조세이탄광 참사의 진실 규명 필요성이 제기될 여지도 있다. 희생자 183명 전원이 해저 탄광에 수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유해 수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남아있다. 사고 관련 문서에는 'OOOO 사체에 관한 건', '매장 비용 지급 결정 통지, 박O돌 외 20명' 처럼 유해 수습을 짐작케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또 사고 직전 며칠간 무리한 갱내 채굴 작업이 이뤄졌다는 기록 등 수몰 사고의 원인을 추정해볼 만한 대목들도 있다.

(출처: 한겨레)

이모저모

(2면의 계속)

이 성전은 유노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블라디미르주의 네를 강변 포크로브(성모 수호) 성전의 모형 그대로 지어졌다. 그 성전에는 심페로폴의 성삼위일체 성전에서 옮겨온 성 누가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다.

탐방 코스는 극동지역 최초로 이름을 딴 블라디미르 지리 높스키 거리를 따라 이어져

성 니콜라이 추도트위레즈 성전에서 마무리되었다. 이 성전은 2003년에 건축을 시작했고, 2004년 12월 19일 성 니콜라이의 탄생일을 축일로 기념한다.

사할린주 도서관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특별한 관심을 두고 운신이 불편한 참가자들을 위해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하고, 고정도구와 승강기가 장착된 특수 차량을 이용해 장애인들이 도서관이 주관하는 기획들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Сахалинская библиотека организовала инклюзивную экскурсию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универсаль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провела выездную экскурсию «Новый Сахалин» для людей с инвалидностью и маломобильных граждан.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ялось 23 июня в рамках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го проекта «Исследуя Сахалин».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СахОУНБ. Участники увидели, как сочетаются духовные традиции и современные архитектурные решения в облике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ервой точкой стал Храм святителя Луки (Войно-Ясенецкого) на территории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больницы. Святитель Лука, он же профессор медицины В. Ф. Войно-Ясенецкий, является покровителем врачей и больных. Храм по форме повторяет храм Покрова на Нерли во Владимирской области, входящий в список Всемирного наследия ЮНЕСКО. В храме хранятся мощи святого, привезенные из симферопольского собора Святой

Троицы.

Маршрут пролегал по улице Владимира Жириновского — первой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званной в его честь.

Завершилась экскурсия у Храма святителя Николая Чудотворца. 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ачалось в 2003 году, а день памяти святителя Николая — 19 декабря 2004 года — считается днем рождения прихода.

Библиотека уделяет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созданию доступной среды. Для перевозки маломобильных участников используется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й автомобиль с подъемником и креплениями для колясок, что позволяет людям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полноценно участвовать в проектах.

유즈노사할린스크 발달장애인을 위한 체육대회에 130명 참가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 29회 발달장애인들을(18세 - 80세 까지) 위한 체육대회가 매년 개최되는 가운데 올해 참가자들 130 명이 모였다. 일주일간 도시 곳곳의 행사장에서 7개 종목의 스포츠 경기가 진행되었다고 유즈노사할린스크 시행정부가 전했다.

참가자들은 수영, 보체(Бочче: 골에 공넣기), 체스, 사격, 탁구, 다트, 제자리 전굴(Foward Bend: 다리를 넓게 벌리고 서서 상체를 숙이는 동작), 단체 계주에서 경쟁을 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무엇보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활동을 강조하며, 체육문화와 대중스포츠의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통령은 여러 단계의 사람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현대적인 스포츠 시설을 구축하여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육문화 및 스포츠국의 알렉세이 보젠코 국장은 "오늘 우리는 단순히 스포츠 축제가 아닌 참가자들이 승리를 위해 자신의 높은 수준의 훈련과 의지를 드러내는 진지한 투지를 보고 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여는 중요한 목적은 모든 참가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느끼고, 이에 따른 존중과 가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 체육대회는 스포츠적 과제만 성취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적 적응을 장려하고, 규칙적인 스포츠 활동으로 주민들의 재활과 참여를 촉진시키고 있다. 경기가 개인전과 단체전으로 진행된 가운데 발달장애인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여러 조로 나누어 경기가 펼쳐졌다. 경기 우승자와 수상자들에게는 상장과 메달을 수여하고, 공연으로 체육대회를 마무리했다.

Спартакиада для людей с ОВЗ собрал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130 участников

В Южн-Сахалинске завершили XXIX Спартакиаду для люд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Ежегодное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ло 130 участников в возрасте от 18 до 80 лет. В течение недели на разных площадках города проходили состязания по семи видам спорта. Подробности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Участники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плавании, бочке, шашках, пулевой стрельбе, настольном теннисе, дартсе, наклоне вперёд из положения стоя и командной эстафете.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уделяет приоритетное внимание развитию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ы и массового спорта, подчеркивая их прямую связь со здоровьем нации.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тавит задачу сделать спорт доступным для людей любого уровня подготовки, создавая современн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в шаговой доступности.

«Сегодня мы видим не просто спортивный праздник, а серьезную борьбу, где участники демонстрируют высокий уровень подготовки и волю к победе. Наша главная цель —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в которых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почувствует себя лучшим, получит заслуженное признание и поддержку близких», — отметил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по физической культуре и спорту администраци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лексей Боженко.

Спартакиада решает не только спортивные задачи, но и способствует социальной адаптации, реабилитации и вовлечению жителей в регулярные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ходили в личном и командном зачетах в нескольких группах с учетом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здоровья участников. Победителей и призеров наградили грамотами и медалями. Завершили Спартакиаду концертом.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PP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3810750340000024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МЕБЕЛЬНАЯ ФАБРИКА

1+2

КУПИ ДИВАН -
ПОЛУЧИ ПОДАРОК!

Березка 2

Лужники

М²

Эконом

ул. Украинская, 58, тел.: 77-77-00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실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워토리야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8-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3-3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PP575
Тираж 11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